

국내 자살률 줄어드는데 광주는 증가

2016년 전국 평균 전년비 0.9명 감소...광주 1.8명 늘어 전남, 17개 시도중 4번째로 높아...정신과 질병문제 최다

복지부 2018 자살예방백서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감소한 반면 광주의 자살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인구 1만명당 자살률(명)은 광주 21.6명, 전남 23.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12번째와 4번째였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27.5명), 가장 낮은 곳은 대구(20.3명)였다.

눈에 띄는 점은 2016년 전국 평균 자살률(25.6명)이 2015년(26.5명) 대비 0.9명 감소했다는 점이다. 반면 광주는 2015년(19.8명) 대비 1.8명이 증가했으며, 전남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0.8명이 감소하는 데 그쳤다. 광주의 자살률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6년 기준 광주의 전년대비 자살 증가율(1.8명)은 같은 기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3.5명), 부산(2.5명)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한편 2016년 우리나라 전체 자살 사망자는 1만3092명으로, 광주는 339명, 전남은 562명이었다. 직업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등 광역시는 학생·가사·무직을 제외하고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남 등 도 지역에서는 농업·농림업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전체 직업별 특성으로는 학생·가사·무직(56.4%),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10.5%), 단순노무 종사자(6.3%), 농업·농림업 종사자·전문자 종사자(5.2%) 순이었다. 자살 사망자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37.2%), 대학교 졸업(21.1%), 초등학교 졸업(16.6%) 순으로 분석됐다. 자살 동기는 정신과적 질병 문제(36.2%)가 가장 많았고 경제생활 문제(23.4%), 육체적 질병 문제(21.3%)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10~40대는 정신과적 질병 문제, 41~50대는 경제적 문제, 51~60대는 정신과적 질병 문제,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가장 높았다. 70대 노인 자살률은 2015년 62.5명에서 2016년 54.0명으로 감소했지만 10대 청소년은 2015년 4.2명에서 2016년 4.9명으로 소폭 늘었다. 자해·자살 시도자는 5~7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창수 센터장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감소시키는 게 목표"라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



조선대 캠퍼스 장미 만발 14일 조선대학교 장미원을 찾은 시민들이 각양각색의 장미꽃을 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조선대 장미축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사가 답안지 분실...광주 모 여고 황당 재시험

교사 "남은 시험지로 착각" ...학생·학부모 "성적 바뀌었다" 반발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감독 교사가 일부 학생의 중간고사 답안지를 분실해 수백명의 학생이 시험을 다시 치른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시험으로 시험성적이 바뀌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2학년의 중간고사 시험이 치러졌다.

하지만, 이날 2학년 7반 교실에서 23명의 학생이 1교시 영어과목 시험을 치른 뒤 제출한 답안지 가운데 5장이 분실됐다. 이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 영어과목은 객관식(20문항·60점), 주관식(4문항·40점)으로 객관식 답안지(OMR)와 주관식 답안지가 각각 배포됐으며, 분실된 답안지는 주관식 답안지 5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답안지 분실을 파악하고, 지난 7일 답안지를 버린

곳으로 추정되는 교실 내 쓰레기통을 확인했으나 이미 비워진 상태였다는 게 학교측의 주장이다. 학교측은 "해당 학급의 시험 감독을 하던 교사가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5명의 주관식 답안지를 여분의 시험지로 착각해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학교는 결국 지난 8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답안지가 분실된 영어과목의 주관식 시험을 다시 보기로 결정한 뒤 지난 10일 오전 1교시 2학년 전체 237명의 학생이 재시험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 특정 학생의 답안지가 분실돼 재시험을 본다는 소문이 돌면서 당사자로 지목된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1점 하나에도 내신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답안지를 분실해 시험을 다시 치른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학생은 가채점 기준이지만, 기존 시험보다 10점이나 떨어졌으며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의 교감은 "교사가 분실한 사고라서 경찰에 접수하진 않았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재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9 | 해질 19:29 | 달돋이 05:27 | 달질 19:10

벌써 여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림	17/29
목포	흐림	17/25
여수	흐림	17/23
나주	흐림	13/29
완도	흐림	15/24
구례	흐림	13/29
강진	흐림	13/25
해남	흐림	13/26
장성	흐림	13/28
보성	성	12/25
순천	흐림	16/26
영광	흐림	15/28
진도	흐림	15/25
전주	흐림	16/29
군산	흐림	15/27
원산	흐림	13/29
홍산도	흐림	15/21

지역	바다 날씨	파고(m)
서해	안바다	남동~남 0.5
남부	안바다	남동~남 0.5~1.0
남해	안바다	남동~남 0.5
서부	안바다(동)	남동~남 0.5~1.0
서부	안바다(서)	남동~남 1.0~1.5

날짜	날씨	기온
16(수)	흐림	20/25
17(목)	흐림	20/24
18(금)	흐림	19/24
19(토)	흐림	17/25
20(일)	흐림	14/25
21(월)	흐림	16/23
22(화)	흐림	15/25

내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소방청 전국 349곳 정체도로...체험 신청시 국민도 참여

소방청은 "16일 오후 2시 전국 주요 정체도로 등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훈련은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과 주요 정체도로 등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349개 지역에서 이뤄진다. 훈련은 119 출동 지령에 따라 펌프차와 구조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 3~4대가 실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출동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해 홍보 방송을 한다. 교통 혼잡 도로가 없는 중·소도시 소방서는 재래시장 등에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동승체험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소방차에 직접 타 소방관과 함께 출동 훈련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선거범죄 1심 6개월 내 선고 준수"

법원 '첫 공판서 입증계획·증거조사 방법 확정' 결의

법원이 선거재판에서 빠른 결정을 내기 위해 첫 공판서 심리계획 윤곽을 확정하고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속한 선거재판 심리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첫 공판서에서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을 확정하기로 했다. 재판의 향방을 판가름할 결정적 사안으로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대방의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을 문제 제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첫 공판서에서 확정된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이 다음 공판 때 바뀌는 경우도 많아서 선거재판이 길어지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고려해 재판장들은 앞으로 첫 공판에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을 원칙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 에너지관리공단 | 농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평안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